

학부(과)	경영학과	학번	2018	성명	최 00
제목	<p style="text-align: center;">언어는 학습이 아니라 습득이다 :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여는 나만의 언어 습득법</p>				
<p>○ 에세이 작성 동기(추천 이유 등)</p> <p>나는 원래 외국어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었다. 가족 누구도 해외 경험이 없었고, 글로벌 환경도 내 삶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언어적으로 고립된 한국어의 특성까지 생각하면, 내가 영어를 못했던 건 당연했다. 그야말로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p> <p>그런 내 인생을 바꾼 건 아주 사소한 우연이었다. 3년 전, 혼자 속초 바다를 걷다가 심심해서 어떤 여행자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녀는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 Shelby 였다. 그녀는 한국어를, 나는 영어를 못했다. 우리는 손짓과 표정으로 대화를 시작했고, 믿기 어렵게도 그 대화는 무려 8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지금까지 어울려 노는 최고의 친구가 되었다. 몸짓으로 시작된 소통이 어느 순간 영어 문장으로 이어지는 기적 같은 경험 속에서 나는 두 가지를 깨달았다. “<b>영어는 실전에서 는다.</b>” 그리고 “<b>영어는 나를 전 세계인 80억 명과 연결한다.</b>”</p> <p>그날 이후, 나는 영어를 제대로 배워보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주변 조언과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인 학원수강, 미드 시청, BBC 청취 등을 보면서 한가지를 느꼈다. “<b>이 방식대로 하면, 결국 돈내고 이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 취업을 위한 영어점수 확보 정도밖에 못 하겠구나...</b>” 그래서 나는 나만의 강점, ‘<b>수치심 없는 실행력</b>’을 선택했다. 남산, 명동, 이태원에서 외국인들에게 말을 걸며, 실수하고, 거절당하면서, 영어를 ‘<b>학습이 아니라 습득</b>’했다.</p> <p>그 결과, 나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해외 고등교육 이수자나 외국 근무자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영어를 쓰게 되었다. 준비 없이 본 OPIc 에서도 곧바로 최고 등급(AL)을 받았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언어를 책이 아니라 ‘<b>현실 속</b>’에서 습득했기 때문이다.</p> <p>그래서 이 글을 쓴다.</p> <p>이 글은 영어 점수를 높이는 법이 아니라, <b>우물 밖으로 나가는 첫 한 걸음만 있다면 누구든 세계를 만날 수 있다는 증명</b>이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도, 그 첫걸음을 내딛을 작은 용기가 전해지기를 바란다.</p> <p>○ 학습법 등 Tip 세부 내용(실제 학습 방법, 적용 사례 등)</p> <p>아래 학습법들은 항공대의 “기본 문법 + 수능 단어” 수준을 갖춘 학생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언어는 문제풀이가 아니라 <b>환경과 실제 사용</b>이 누적될 때 몸에 스며든다.</p> <p>따라서 이 글은 시험 공식이 아니라, <b>영어 화자로 전환되는 실제 습득 방식</b>에 초점을 둔다.</p>					

여기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전제가 하나 있다. 한국어와 영어는 어순, 발음, 사고방식까지 완전히 다르다. 한국어: “I hamburger eat” / 영어: “I eat hamburger”처럼 구조 자체가 반대이며, 단어 유사도도 0%에 가깝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비로소 “한국어식 번역”을 버리고, 영어를 **그 언어 자체로 생각하는 모드**, 즉 영어 화자 사고로 전환할 수 있다.

### STEP 1. 동기 설정

언어 습득의 핵심은 ‘**동기**’다. 나의 동기는 단순했다. 한국이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벗어나 우물안 개구리가 아닌, 세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알바트로스가 되고 싶었다. 이 목표가 습득의 에너지였다.

### STEP 2: 언어는 ‘**학습**’이 아니라 ‘**습득**’이다. 생활 전체 영어화

**Input Flooding** 은 언어습득에서 가장 강력한 기법이다. 나는 핸드폰, 노트북 언어를 영어로 바꾸고, 인스타, 유튜브 알고리즘을 영어 유머 영상으로 채웠다. 평소 채팅도 영어 화자를 우선으로 했다. 핵심은 억지 공부가 아니라, 재미 기반 입력량 확대이다. 이렇게 하면 언어가 무의식적으로 축적된다. 즉 무의식 적으로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를 보고, 영어를 활용해야한다.

### STEP 3: 수치심 제거 + 폭발적 사용량

언어가 가장 빨리 느는 순간은 실전에서 많이 말할 때다. 나는 이태원, 명동, 남산 등 외국인이 많은 곳에서 말을 걸었다. 실수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HelloTalk 같은 언어교환 어플로 메시지-음성-전화-영상통화 순으로 사용량을 확대했다. 물론 무료이다.

4 주간 꾸준히 대화하니 자연스럽게 OPIc IH 급 회화력이 형성됐다.

### STEP 4: 토익 시험 공부는 ‘**목표**’가 아닌 ‘**도구**’

토익 공부를 점수 목표로 사용하지 않고, 실전 표현력 강화 도구로 사용했다. 문법은 구조를, 어휘는 표현 폭을, 듣기는 영어 리듬을 익히는 데 도움됐다. 토익점수는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 STEP 5: 언어로 ‘**도전**’하라

언어는 공부가 아니라 사용하면서 완성된다. 즉 영어가 필요한 아르바이트, 동아리, 대회 등 현장 사용 경험이 실력을 끌어올린다.

나는 영어가 어느 정도 되자, 스타트업 투어 가이드를 시작했다. 초반의 실수와 시행착오를 거치며 600 회 이상 투어를 진행했고, 꾸준한 실전 누적이 나를 성장시켰다.

### STEP 6: 교환학생-언어를 삶의 100%로 확장

언어를 최종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그 언어로 살아보는 것이다. 영어권이 아니더라도 유럽 교환학생은 영어가 사실상 공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강력한 성장 기회를 준다. 수업 방식은 토론, 발표, 팀프로젝트 중심이며,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의 일상 대화까지 모두 영어로 이루어진다. 행정, 생활, 의사소통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영어는 단순 과목이 아니라 삶의 언어가 된다.

## 번외 1: 사랑하는 사람과 싸워라! - 외국인과의 교제

조금 엉뚱하지만, 외국인 연인과의 관계는 영어 실력을 폭발적으로 늘린다. 가치관 차이로 갈등이 자주 생기고, 이 과정에서 상대를 설득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 정확한 문장 구성, 고난도 청해력, 감정 표현 영어가 필요하다. 갈등과 화해가 영어로 이루어지며 몰입도가 극대화되고, 영어는 공부라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언어가 된다.

## 번외 2 : OPIc AL 8 주일 전략

이 글을 읽는 학생들 중에는 실전 영어보다 단기 OPIc 성적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물론 오픽은 발화 시험이기에 앞서 제시한 언어 습득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현실적 이유로 단기간에 AL 을 목표로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1. 환경 영어화 유지를 위해 폰,노트북 모두 영어 설정을 유지하고, 최소 3~4 주 언어교환 앱을 이용하여 대화량을 확보한다.
2. 유튜브 OPIc AL 답안 5 개 선택 :스크립트 외우지 말고 패턴만 흡수하며 반복 발화한다.
3. Survey 선정에서 직업=무직/혼자거주 처럼 쉽게 답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한다.
4. 쉬운 영어로 스크립트 직접 작성하고 AI 툴을 이용해 검수받고 수정, 8 주동안 반복한다.

## ○ 학습법을 통한 능력 향상 정도 또는 기타 영향

나의 영어 습득은 단순한 언어 공부를 넘어, 삶의 방향 자체를 바꿔 놓은 전환점이었다. 앞서 언급한 OPIc 최고등급(AL) 외의 성과들이다.

1. 한국인, 영국인 대표가 있는 관광 스타트업에서 2년 반동안 근무하고 있으며, 서울 1위 프리미엄 아웃도어 액티비티(Trip Advisor)로 성장시켰다. 600 회 이상의 모든 투어에서 만점 평가를 받았다.



2. 핀란드 교환학생으로 파견, 다국적 전공프로젝트들과 함께 네트워킹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3. 이 실천의 축적은 내 진로까지 바꾸었다. 세계를 경험하며 글로벌 커리어에 대한 열망이 생겼고, 결국 독일에서 채용 연계형 해외 인턴십에 합격하며 새로운 미래의 첫 장을 열었다.



4. 지금은 영어를 기반으로 독일어에도 도전하고 있다. 두 언어가 모두 게르만어족이기에 영어 학습 때 사용했던 ‘실전 중심 습득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힘이 된다.



결국 영어는 만점 투어가이드, 교환학생 성공적 파견, 해외 인턴십 합격, 그리고 또 다른 언어 도전으로 이어지는 나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었다.

### ○ 최종 소감

나는 완전한 ‘제로’에서 출발했다. 해외 경험도, 외국어 교육도, 글로벌 환경도 없는 곳에서 시작했지만, 오히려 그 점이 나에게서는 강력한 추진력이 되었다. 나는 남들의 방식이 아닌, 나 스스로 고안한 가장 원초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언어를 습득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언어를 배우는 순간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실수와 부끄러움, 실패조차도 나에게서는 성장의 감각이었고,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즐거웠다.

지금의 나는 누구보다 언어 학습에 자신이 있다. 이는 재능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방법과 나를 믿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말하고 싶다. 영어는 절대로 특별한 사람만이 잘할 수 있는 능

력이 아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진심으로 이루고 싶다면, 누구든지 영어를 자신의 언어로 만들 수 있다.

나의 이 경험과 작은 성공의 기록이,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 혹시 지금 영어 때문에 막막함을 느끼는 학생이 있다면, 나는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나도 했으니, 당신도 반드시 해낼 수 있다.

언어는 당신의 세계를 바꾸는 첫 번째 도구이고,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다.